

지역 여행업계의 절규 “무안공항 제발 열어 주세요”

제주항공 참사 후 10개월째 폐쇄·방치... 업계 “고사 위기” “매출 70% 이상 줄어 빚 내 생계 유지”... 생존권 보장 촉구

“추석 연휴면 적어도 50명은 받았는데 지금은 예약이 5명밖에 없어요. 그마저도 출국하려면 부산, 인천, 광주, 대구로 가야되니 시간도 들고 돈도 들고 손님들도 짜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광주·전남 여행업자들이 호남권 유일한 국제공항인 무안국제공항 장기 폐쇄로 고사 위기에 놓였으며 정부에 공항을 재개항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난해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여전히 사고 조사와 안전점검 계획 등이 답보상태에 머무르면서 무안공항이 삶의 터전이었던 여행업 종사자들의 삶도 지역경제와 함께 무너졌다고 호소하고 있다.

광주·전남 여행업자 등 8000여명으로 구성된 ‘무안공항재개항추진위원회’는 지난 30일 오전 8시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무안공항의 정상 운영을 위한 조치를 즉시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위원회는 이날 ‘정부의 즉각적인 재개항 결정과 구체적 일정 발표’, ‘사고 조사 및 안전 점검 계획의 전면 공개와 투명성 확보’, ‘여행업 생존권 보장을 위한 긴급 금융·세제 지원 및 고용안정 대책 시행’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무안공항이 사고 이후 10개월째 완전 폐쇄된 채 방치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지역 관광 여행업 전반이 붕괴 직전에 이르렀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여행업계에서는 그동안 광주·전남도, 중앙정부에 수차례 운항 재개를 촉구했지만 정부는 수차례

폐쇄 기간을 연장하며 어떠한 구체적 조치도 내놓지 않았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더욱이 사고 조사와 시설 점검은 단 한결음도 진전되지 않았고 재개항 일정에 대한 어떠한 책임있는 설명도 내놓지 않았다는 것이 여행업계 주장이다.

당초 국토부는 ‘단계별 운항 대안’에 따라 5월까지 사고 수습과 활주로 정리 등을 진행하고 8월까지 활주로 항행안전등 보수를 진행한 뒤 활주로 주변 계기착륙시설 설치공사가 완료되는 9월 이후 사고가 발생한 장소 반대편 활주로에 운항이 가능할지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으나, 30일 현재까지 여행업계는 운항 가능 여부 등을 전달받지 못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사고가 발생한 지 반 년이 흐른 지난 6월에서야 여행업계 등 광주·전남 지역 참사 여파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하면서 ‘뒷북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윤기주 한국여행업협회 이사는 “지역 여행업계는 제주항공 참사 이전보다 매출이 70% 이상 줄어 들며 빚을 내서 살고 있다. 기존 홍보물품이나 특별 용자지원만이 아닌 더 실효성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사고 조사와 안전 점검 계획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전면 공개하고 고사 직전인 여행업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수 무안공항재개항추진위원장 추진위원장은 “무안공항 관련해 광주시장 및 관계자들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한 것 같다. 시장이 나서고, 도지사 가 나서면 쉽게 해결될 줄 알았지만 10개월째 답보



광주·전남 여행업 종사자들로 구성된 무안국제공항재개항추진위원회가 30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무안공항 재개항을 촉구하고 있다. (무안국제공항재개항추진위원회 제공)

상태”며 “무안공항은 호남권 허브공항으로 연 20만 명이 이용하는 공공기관이며 호남권 1000개 여행사 대표들과 약 7000명의 가족 및 직원들의 삶이다. 정상 운영을 위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전국적인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공항에서는 태국 방콕에서 출발해 착륙하던 제주항공 여객기가 로컬라이저와 충돌해 179명이 숨졌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황금박쥐, 20년만에 ‘10배’

치솟는 금값에 함평 ‘황금박쥐상’ 가치 300억

금값이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함평 황금박쥐상(사진)의 가치가 300억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함평군은 “지난 29일자로 황금박쥐상의 현재 시세가 300억원을 돌파해 30일 현재 321억 59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함평군 황금박쥐상은 지난 1999년 함평군에서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1급인 황금박쥐 162마리가 발견된 것을 기념해 만들어진 높이 2.18m, 폭 1.5m의 동상이다.

함평군이 지난 2005년 28억 원 상당의 순금 162kg과 은 281.39kg 등을 구입하고 3년 뒤인 2008년 2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들여 완성했다.

한국거래소(KRX)의 금 시세를 보면 30일 기준 국내 금 1g 가격은 19만 4850원이다. 군이 황금박쥐상 제작을 위해 금을 구입했던 2005년의 금 가격이 1g당 2만 4000원 안팎으로 추정되는 점을 고려하면, 20년만에 8배 넘게 가치가 오른 것이다.

같은 날 기준 은 가격은 g당 2088원으로서, 황금박쥐상 내에 들어간 은의 가치는 5억 8700여만원으로 추산된다.

앞서 황금박쥐상의 가격은 지난 2023년 140억원 수준이었으며, 2년만에 2배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황금박쥐상은 함평군 함평추억공작소 1층 특별전시관에 전시돼 있으며, 도난 방지를 위



해 3cm 두께의 방탄 강화유리로 보호받고 있다. 적외선 감지장치, 동작감지기, 열감지기 등도 설치돼 있다.

지난 2019년에는 3인조 절도범들이 황금박쥐상을 훔쳐가려다 검거되기도 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한전, 장애인 고용 외면 ‘여전’

지난해 고용률 3.44%... 5년 연속 미준수로 부담금만 11억

한국전력공사가 5년 연속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고 지난해 부과받은 부담금만 11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0일 더불어민주당 박상언(서울 종로구)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의 지난해 장애인 고용률은 3.44%로 의무 고용률인 3.8%에 미치지 못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은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나,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한전은 또 지난해 의무 고용률 미이행으로 총 11억 6500만원의 부담금을 부과받으며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중 가장 높은 부담금을 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산자부 산하 미준수 기관 14 곳의 평균 부담금 2억 1400만원의 약 5.5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한전은 최근 5년 연속 장애인 의무고용을 위반해 총 29억 6700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

났다.

한전이 납부한 부담금은 2021년 7억 7200만원, 2022년 1억 7500만원, 2023년 1억 9300만원까지 감소했으나, 지난해 7억 1000만원으로 급증했다.

한전의 자회사인 한전엠씨에서도 고용률이 2.87%밖에 미치지 못하며 평균의 두 배가 넘는 4억 5800만을 부과받았다.

박상언 의원은 “공공기관이 해마다 반복적으로 장애인 의무고용을 외면하고 부담금만 납부하는 것은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방증이다”며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돈만 내면 된다’는 안일한 자세로 법적 의무를 회피하는 것은 공적 책무의 명백한 포기이자 장애인 고용 확대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무책임한 태만이다”고 비판했다.

한편, 지난해 장애인 의무고용률인 3.8%를 지키지 못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은 전체 39곳 중 14곳이다. 산자부 산하 39개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평균은 4.03%이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선선한 가을... 큰 일교차

광주·전남, 2일 밤부터 비

광주·전남 지역에서 선선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낮과 밤의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다.

광주지방기상청은 당분간 서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 영향을 받아 구름 많고 선선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다고 지난 30일 예보했다.

기온은 평년(최저 13~28도, 최고 24~26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수준을 보이며 일교차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1일 아침 최저기온은 13~18도, 낮 최고기온은 25~29도를 보이고, 2일 아침 최저기온은 15~19도, 낮 최고기온은 25~27도를 보일 것으로 예보됐다.

기상청은 2일 밤부터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광주·전남 지역에 5mm 미만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비는 3일까지 내리며, 주말에는 흐린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3일부터는 낮 최고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면서 더욱 쌀쌀한 날씨를 보일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창고 매매·임대

대지 920평

건물 680평 (1·2층)

광주광역시 남구 송하동 127-3
(도로변·육교옆)

문의 **062.220.0513**
010.3646.2701